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기술 2023-162

2023.11.23.

이 보고서는 시가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전기가스업

SGC에너지(005090)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조민상 전문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회의”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SGC에너지(005090)

친환경 에너지 기업 전환으로 기업역량 집중

기업정보(2023/11/16 기준)

| | |
|------|----------------------------|
| 대표자 | 이우성/박준영/이복영 |
| 설립일자 | 1967년 6월 27일 |
| 상장일자 | 1993년 1월 6일 |
| 기업규모 | 대기업 |
| 업종분류 | 전기업 /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 주요제품 | 집단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

시세정보(2023/11/16 기준)

| | |
|------------|----------------------------|
| 현재가(원) | 28,900 |
| 액면가(원) | 5,000 |
| 시가총액(억 원) | 4,164.30 |
| 발행주식수 | 14,409,333 |
| 52주 최고가(원) | 35,900 |
| 52주 최저가(원) | 23,650 |
| 외국인지분율 | 5.32 |
| 주요주주 | 이우성, 이원준, 이복영, 이정현, (주)유니드 |

■ 친환경 설비 및 연료 투자로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주)SGC에너지(이하 동사)는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 사용을 확대하고 연료 조달 해외 현지화를 통한 설비와 연료 투자를 추진 중이다. 동사는 2021년 국내 9월 ‘민간 바이오혼소 기업의 국내 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한 MOU’ 행사를 열고 올해 10월부터 60MW 용량의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연료를 국내산 미이용 산림자원으로 대체하여 운영함으로써 향후 3년 이내에 국내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연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사는 국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순환 및 탄소 저감 등 신규사업 발굴

동사는 자원순환 및 탄소 저감을 목표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사업,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수소연료전지 사업 등 미래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 장래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다. 동사는 2023년 11월 중으로 연내 10만 톤 규모의 탄소 포집 설비를 완공할 예정이며,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위한 국내외 기업들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3월 수소연료전지발전 인허가를 취득하여 현재 사업 구체화를 추진 중이다. 동사는 적극적인 신사업 발굴과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미래 산업에 대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

동사는 친환경 발전소 레트로피트(Retrofit), O&M 등을 통한 해외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을 계획 중에 있다. 해외 에너지 시장 개척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3월 동사는 동사의 운영 및 관리 노하우와 SGC이테크건설의 EPC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베트남전력공사(EVN) 산하에 있는 PECC1과 베트남 석탄발전소의 바이오매스 전환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베트남 발전소 바이오매스 전환사업은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 구분 년 | 매출액 (억 원) | 증감 (%) | 영업이익 (억 원) | 이익률 (%) | 순이익 (억 원) | 이익률 (%) | ROE (%) | ROA (%) | 부채비율 (%) | EPS (원) | BPS (원) | PER (배) | PBR (배) |
|---------|--------------|-----------|---------------|------------|--------------|------------|------------|------------|-------------|------------|------------|------------|------------|
| 2020 | 1,065 | (62.5) | 70 | 6.6 | 317 | 29.8 | 7.5 | 1.9 | 294.7 | 4,906 | 39,147 | 8.0 | 1.0 |
| 2021 | 18,984 | 1681.7 | 1,522 | 8.0 | 985 | 5.2 | 10.2 | 3.7 | 250.5 | 4,082 | 41,630 | 11.6 | 1.1 |
| 2022 | 28,233 | 48.7 | 2,094 | 7.4 | 1,484 | 5.3 | 17.4 | 5.3 | 252.5 | 7,686 | 48,174 | 4.0 | 0.6 |

기업경쟁력

[열병합발전 전문기업]

■ 집단에너지 사업

- 군산 지방산업단지에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여 증기, 전기 생산 및 공급 진행

■ 신재생에너지 사업

-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통해 수익 확보

핵심 기술 및 경쟁력

■ 집단에너지 사업

- 증기는 장기공급 계약으로 안정적 수익 확보 및 원가 연동으로 원자재 변동 시 리스크 최소화
- 전기는 계통운영자의 급전지시 및 통제 없이 전량 전력거래소로 역송전하여 SMP 가격으로 판매

■ 신재생에너지 사업

- 250MW 용량 발전설비에 목재펠릿 혼소 운영
- 60MW 용량 발전설비에 국내산 목재펠릿 대체 운영

사업 현황

- 폐배터리 재활용,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신규사업 진행

- 베트남 바이오매스 전환사업 MOU 체결

시장경쟁력

주요 제품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집단에너지 비중]

| 년도 | 시장 규모 | 연평균성장률 |
|----------|----------------|--------|
| 2023년 | 40.7T Wh(6.3%) | ▲2.1p% |
| 2036년(E) | 56.6T Wh(8.4%) | |

☞ 총발전량 대비 집단에너지 비중 증가

ESG Overview

| 구분 | 주요 활동 |
|---|--|
|  산업별 주요 ESG 이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업으로 환경 영향관리, ESG 경영 등이 주요 관리 이슈 |
|  환경(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취득 • 사업 총괄 임원 직속의 환경안전팀 조직 운영 • 자체 사내 관리기준 제정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
|  사회(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취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취득 |
|  지배구조(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총 6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 • 윤리 규범, 공정거래 원칙, 협력사 행동규범 등 외부 공개 • 사이버 신문고와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운영 |

I. 기업 현황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영위

동사는 열병합발전을 통해 증기 및 전기를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사업과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 발생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및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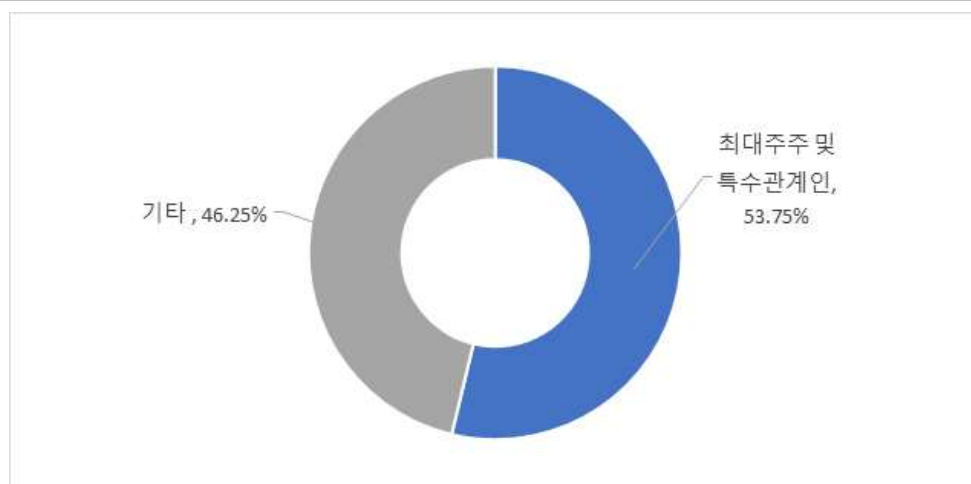
■ 기업 개요

동사는 병유리, 유리 식기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1967년 6월 (주)삼광글라스로 설립되었으며, 1993년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 이후 2020년 10월에 군장에너지(주)를 흡수합병하고 물적분할을 통해 유리 사업 부문은 SGC솔루션(주)로 신규 설립하였으며, (주)이테크건설에서 인적분할한 투자 부문을 흡수합병하여 사명을 SGC에너지(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사는 현재 주요 사업으로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증기 및 전기를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종속회사인 SGC솔루션(주), SGC그린파워(주), SGC디벨롭먼트(주), SGC이테크건설(주)를 포함하여 1개의 상장기업과 12개의 비상장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다.

■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 현황

동사는 기업집단 OCI그룹 소속이다. 2023년 9월 기준 OCI그룹은 동사와 OCI홀딩스(주), OCI(주), (주)유니드, SGC이테크건설(주), 부광약품(주), (주)유니드비티플러스 7개의 상장기업과 15개의 비상장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인 2023년 11월 14일 공시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19.23%의 지분을 보유한 이우성 대표이사이며, 그 외에는 이원준 17.71%, 이복영 대표이사 5.15% 등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3.75%로 파악된다.

그림 1. 주요주주 현황



*출처: 3분기 보고서(2023.11.14)

■ 대표이사

동사는 2022년 11월 이우성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현재까지 이복영, 이우성, 박준영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복영 대표이사는 OCI 창업자 고(故) 이회림 회장의 둘째 아들로 OCI(주) 및 한불화학(주) 대표이사직을 맡아 경영을 총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사를 비롯하여 SGC솔루션(주) 및 SGC디벨롭먼트(주)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다. 박준영 대표이사는 화학공학을 전공하였고, OCI(주) 군산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사 및 SGC그린파워(주)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다. 이우성 대표이사는 이복영 대표이사의 장남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MBA를 졸업하였고, 2007년 SGC이테크건설에 입사하여 2014년 SGC이테크건설 경영기획실장 전무, 2015년 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2022년 11월 동사 및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에 선임되어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 사업 분야 및 주요 매출처

동사의 주요 사업 분야는 집단에너지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구분된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2005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획득하고, 전북 군산시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2008년 4월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하였다. 열병합발전을 통해 증기와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으며, 증기는 군산 지방산업단지의 19개 업체(OCI, 대상, 바스프 등) 및 충청남도 서천 장항읍의 1개 업체(한솔제지) 등 총 20개 업체에 판매하고 있고, 전기는 발전 후 소내에서 사용한 후 남는 전기 모두 전력거래소에 역송전하여 송전단에 설치된 계량기에 의해 실시간으로 계측되고 있다. 증기는 열 수요처와 계약된 계약서에 준하는 조건에 의해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동사로부터 열 수요처까지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이중 보온관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또한, 전기는 전력거래소에서 매시간 송전한 양에 대한 계측과 매시간 공표된 계통한계가격(SMP)으로 판매가격을 정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최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되도록 2016년 10월부터 250MW 용량의 열병합발전소는 신재생 연료인 목재펠릿(바이오매스)을 혼소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2021년 10월부터 60MW 용량의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연료를 ‘국내산 미이용 산림자원’으로 대체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통해 수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온실가스배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동사는 다양한 연료의 연소가 가능한 시설인 순환유동층 연소 보일러를 운영함으로써 목재펠릿을 사용하여 REC를 확보하고, REC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2022년 사업보고서에 따른 동사의 전체 매출액은 9,035억 원으로 파악되며, 제품별 매출액은 전기 부문 5,257억 원, 증기 부문 1,719억 원, REC 부문 1,816억 원 및 기타 242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전기 부문에서 전체 매출액의 58.2%의 매출액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REC 부문, 증기 부문, 기타 순서로 매출액이 발생하였다.

그림 2.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 (2022년 매출 기준)



*출처: 2022년 사업보고서(202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연구개발 활동

동사의 주요 사업 분야 관련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거나, 기술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신기술 인증 취득 등의 가시적인 기술개발 성과물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10월 한국전력공사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표 1. 동사의 기술이전 계약

| 계약상대방 | 계약유형 | 계약체결일 | 목적 및 내용 |
|--------|---------|------------|--------------------------------------|
| 한국전력공사 | 기술사용 계약 | 2021.10.28 | 산성가스 포집 시스템 및 산성가스 포집 방법 (CO2 포집 기술) |

*출처: 2022년 사업보고서(2023), 나이스평가정보(주) 재가공

동사 사업보고서에 따른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2020년 0.07%, 2021년 0.07%, 2022년 0.09%로 확인된다. 주요 사업 부문과 연관성이 있는 업종인 ‘전기업(C351)’ 및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3)’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절반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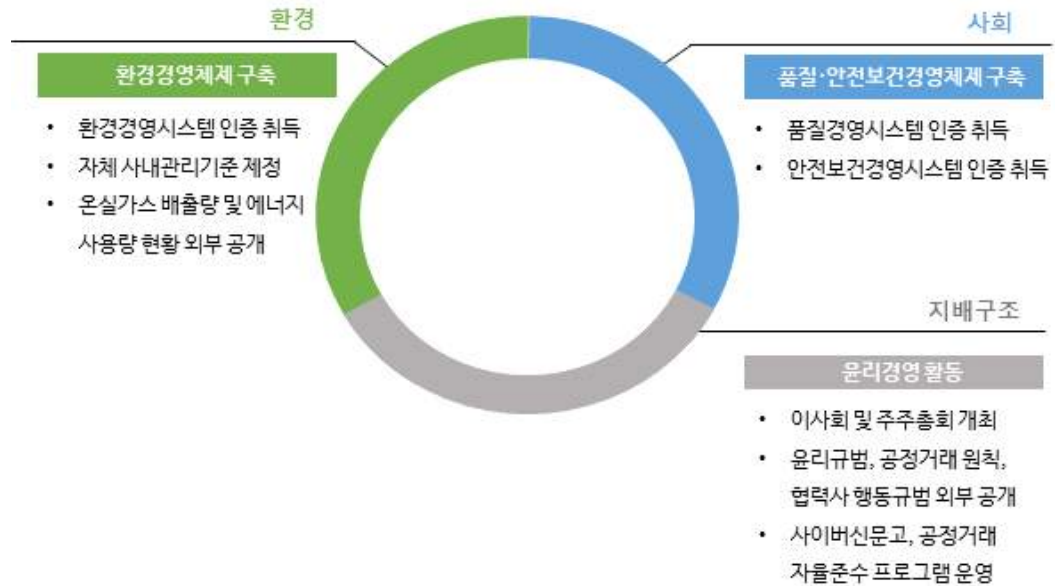
표 2. 동사와 업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비교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평균치(최근 3개년) |
|----------------------------|-------|-------|-------|-------|-------------|
| 동사 | - | 0.07% | 0.07% | 0.09% | 0.08% |
| 전기업(D351) | 0.13% | 0.14% | 0.14% | - | 0.14% |
|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3) | 0.15% | 0.16% | 0.12% | - | 0.14% |

*출처: 2022년 사업보고서(2023),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20~2022)

■ ESG 활동

그림 3. ESG 경영 활동



*출처: 기업 홈페이지(202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동사는 매년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게재하여 ESG 경영 활동성과를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한국ESG기준원의 ESG 평가 등급을 공시하는 등 활발한 ESG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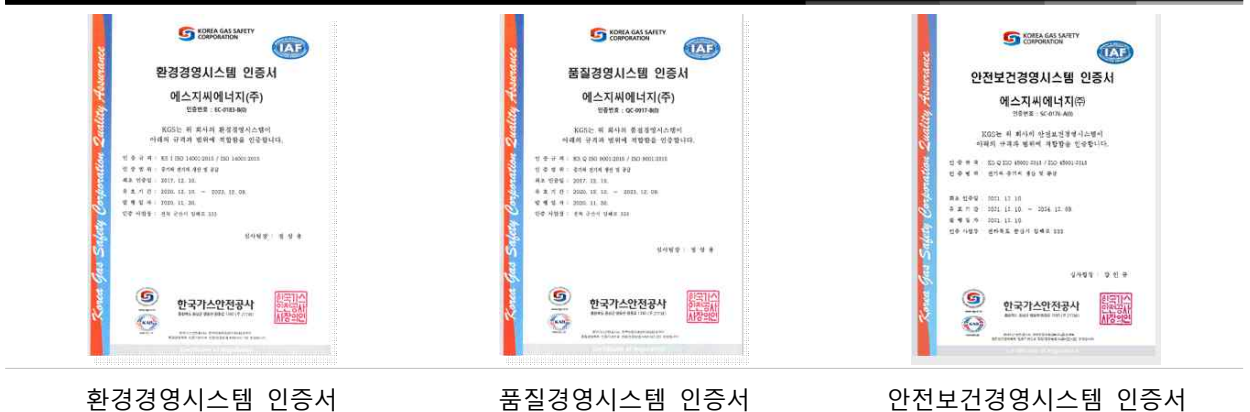
환경(E) 분야에서 동사는 경영 활동 중에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전사적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사업 총괄 임원 직속의 환경안전팀을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다.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자체 사내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자원 순환형 발전모델을 통해 용수 및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시키는 등 산업 내 주요 리스크인 환경영향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사는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경영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기업 홈페이지에 최근 3개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현황을 공시하여 목표 대비 실적과 감축률 등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탄소 저감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023년 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Utilization) 설비’가 준공될 예정이다.

사회(S) 분야에서 동사는 안전보건 체제를 고도화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다. 안전보건 방침, 무재해 달성 현황, PSM(공정 안전 관리제도) 등급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다.

동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7.5년, 여성 5.3년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평균 근속연수(남성 13.7년, 여성 10.2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동사의 1인 월평균 급여액은 583만 원으로 산업 월평균 급여인 636만 원 대비 낮은 수준이다. 단, 고용 형태별 통계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인 전기업(D351) 산업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상위 분류에 따라 작성하였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1년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보고서)

그림 4. SGC에너지 ESG 경영 활동



*출처: 기업 홈페이지(202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지배구조(G)를 살펴보면 이사회는 총 6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3월에 1명의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 되었고 1명의 사외이사가 중도 퇴임하였다. 2022년에 이사회는 총 14회 개최되었으며, 이사회 참석률은 100%이다. 동사는 정관상에 배당 정책을 명시하고 있으며, 2022년 배당수익률은 보통주 기준 5.00%로 주당 1,700원의 배당을 시행하였다. 2022년 11월 기존 대표이사 3인 중 안찬규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이우성 대표이사가 새로 임명되어, 박준영, 이복영, 이우성 대표이사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동사는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리 규범, 공정거래 원칙, 협력사 행동규범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준법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으며, 사이버 신문고와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 ESG 경영체제 현상 유지 및 지배구조 부문 인증 취득

동사는 윤리 규범, 공정거래 원칙, 협력사 행동규범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며 ESG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현재 영위하는 ESG 관련 활동을 유지하고 지배구조 관련 인증을 취득하여 더욱 고도화된 ESG 경영체제를 구축하기를 권고한다.

II. 시장동향

집단에너지 사업 성장, SMP 및 REC 가격 변동성에 대한 대응 전략 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전체 발전량에서 집단에너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예정이며, 단기적인 관점에서 SMP의 2023년 하반기 가격은 2023년 5, 6월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REC 가격은 2023년 현물시장 거래가격 상승으로 관련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 전망

2023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정책심의회를 거쳐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의 전력 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에너지 기본계획에 관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 시장 개편 등 전력 수급 기반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분산형 전원 비중을 2023년 총발전량의 14.4%에서 2036년 총발전량의 23.3%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분산형 전원 중 하나인 집단에너지의 비중이 2023년 총발전량의 6.3%에서 2036년 총발전량의 8.1%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표 3. 국내 분산형 전원 보급 전망

| 구분 | | | 2023년 | 2026년 | 2030년 | 2036년 |
|----------------------|---------------------|------|-------------|-------------|-------------|--------------|
| 분산형 발전량 (T Wh) | 신재생 등(사업용) | | 41.5 (6.4%) | 50.9 (7.6%) | 65.5 (9.7%) | 88.1 (12.5%) |
| | 자가용 | 신재생 | 5.0 (0.8%) | 6.7 (1.0%) | 9.0 (1.3%) | 12.6 (1.8%) |
| | | 상용자가 | 5.7 (0.9%) | 6.1 (0.9%) | 6.1 (1.0%) | 6.1 (0.9%) |
| | 집단에너지 (구역 전기 포함) | | 40.7 (6.3%) | 51.8 (7.8%) | 56.6 (8.4%) | 56.6 (8.1%) |
| | 합계 | | 92.9 | 115.5 | 137.2 | 163.4 |
| 분산형 비중 | | | 14.4% | 17.3% | 20.4% | 23.3%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나이스평가정보(주) 재가공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간한 ‘2022 집단에너지사업 편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은 병행 사업자를 포함하여 총 45개의 사업자가 47개소에서 공급 중이며, 5개 사업자가 5개소에서 신규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 말 기준 전국 허가업체 수는 1,043개, 공급업체 수는 978개로 국내 산업단지 총입주업체(113,095개 업체)의 약 0.86%에 공급하고 있다. 국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업체 수는 2013년 840개에서 2021년 978개로 9년간 연평균 1.92%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국내 산업단지 내 총입주업체는 2013년 80,547개에서 2021년 113,095개로 9년간 연평균 4.33% 성장률을 기록하여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공급이 입주업체 증가분을 따라가지 못해 보급률이 계속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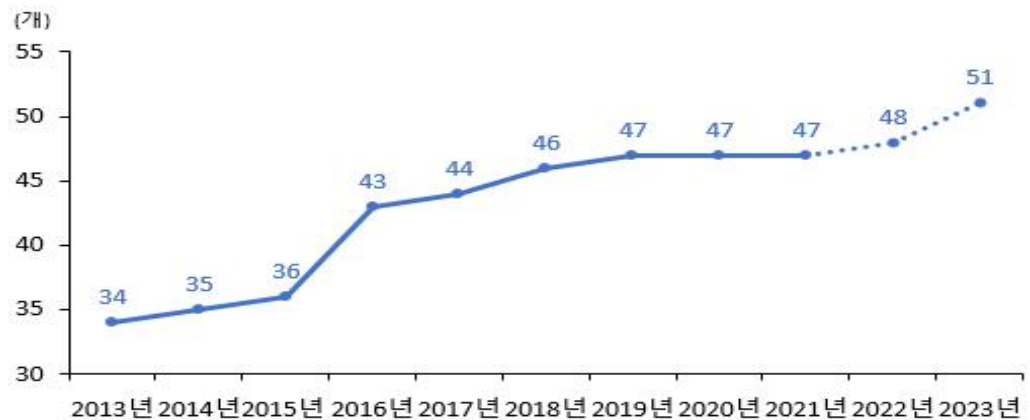
표 4. 국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 연도별 공급 추이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총입주업체 | 80,547 | 80,520 | 85,789 | 92,165 | 96,260 | 101,850 | 102,934 | 107,139 | 113,095 |
| 공급업체 | 840 | 844 | 850 | 908 | 934 | 934 | 939 | 938 | 978 |
| 보급률(%) | 1.04 | 1.05 | 0.99 | 0.99 | 0.97 | 0.92 | 0.91 | 0.88 | 0.86 |
| 사업장 수 | 34 | 35 | 36 | 43 | 44 | 46 | 47 | 47 | 47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나이스평가정보(주) 재가공

한편, 2020년 2월 발표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분산 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전환을 위해 2023년까지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장 수를 51개까지 늘려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국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장 수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나이스평가정보(주) 재가공

■ SMP 가격변동 추이

동사는 생산된 전기를 소내에서 사용한 후 남은 전기는 계전량 전력거래소로 역송전하여 SMP로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동사의 전기 부문 매출액은 SMP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SMP는 연료 가격의 폭등으로 202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 12월 267.3원/kWh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1년 평균 94.34원/kWh보다 183.3%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SMP는 2022년 12월 이후 SMP 결정력이 높은 LNG의 국제 시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감소하다가 통상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봄철에 들어서면서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3년 5월 143.64원/kWh를 기록하였다.

한편, SMP는 LNG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LNG 가격은 원유가격에 연동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원유가격이 SMP에 반영되기까지 약 6개월의 시차를 고려하면, 원유가격의 최근 6개월간의 가격변동을 통해 SMP의 향후 6개월의 가격변동 추이를 예측할 수 있다. 원유가격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2022년 7월 이후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감소하다가 2022년 12월 이후 박스권에 접어들면서 안정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SMP 또한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2022년 12월 전력 거래가격 상한에 대한 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긴급 정산가격(이하 SMP 상한제)이 시행되었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 동안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하면 1개월 동안 적용되며, 연속 3개월을 초과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하반기부터 SMP 가격이 상승하면서 SMP 상한제에 따라 2022년 12월 158.96원/kWh, 2023년 1월 160.11원/kWh, 2023년 2월 161.98원/kWh, 2023년 4월 157.15원/kWh로 긴급 정산가격이 정해져 전력 시장에 반영되었다. 다만, 2023년 5월과 6월 SMP가 긴급 정산가격 아래로 내려왔으며, 국제 원유가격 변동성 고려 시 2023년 하반기에도 SMP 가격이 2023년 5월, 6월 수준으로 안정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SMP 상한제 적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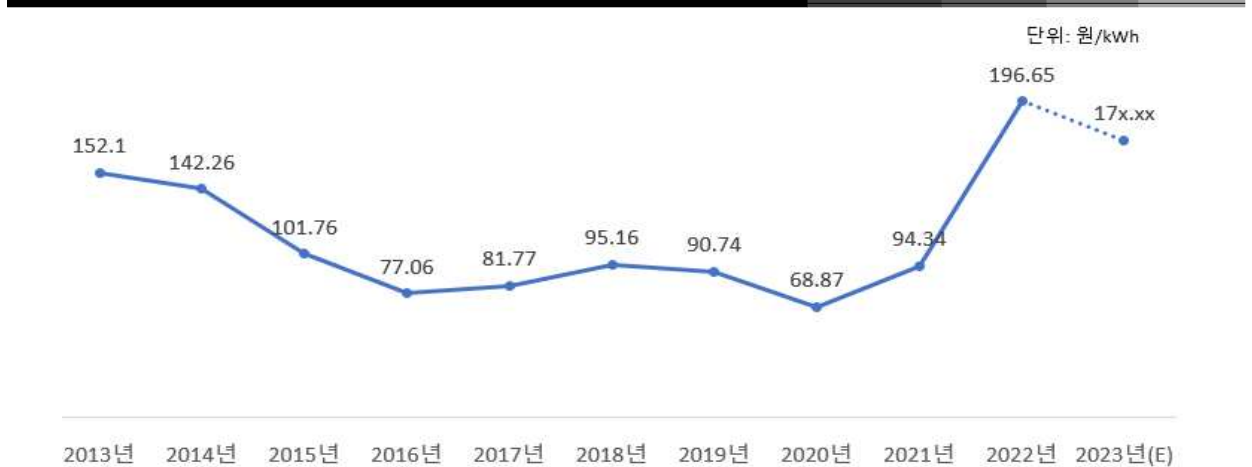
2023년 월별 SMP 가격변동 추이로부터 2023년 평균 SMP 가격은 2022년 평균 SMP 가격인 196.65원/kWh보다 낮은 17x.xx 원/kWh 내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의 전기 판매량이 2017년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함을 고려할 때 2023년 전기 부문 매출은 2022년 전기 부문 매출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유가와 SMP 가격 연동 관계



*출처: 전력거래소, 한국석유공사, 나이스평가정보(주) 재가공

그림 7. 연도별 SMP 가격 동향



*출처: 전력거래소, 나이스평가정보(주) 재가공

REC 인증서 거래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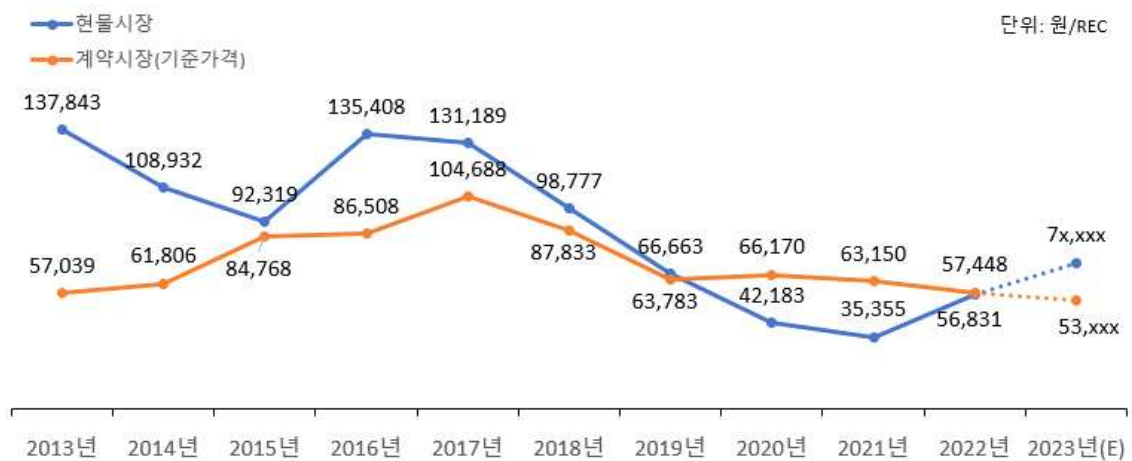
동사는 기존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원료(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 REC를 획득하고 이를 매주 화, 목요일에 열리는 REC 현물거래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매도하거나, 필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와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을 판매하고 있다. 동사는 REC 거래가격에 따라 현물시장과 계약시장으로 유연하게 판매전략을 수립하여 거래하고 있으며, 장기계약 때 변동성이 적은 정부 기준가격 또는 고정가격으로 계약하고 있다.

한편, 현물거래가격은 2016년 이후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자가 급증하면서 수요 대비 공급량 초과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여 2020년 정부 기준가격(66,170원)이 현물가격(42,183원)을 넘어섰고, 2021년 35,355원을 기록하였다. 다만, RE100 참여 기업의 증가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이 상향 조정되면서 RE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현물시장 거래가격이 56,831원으로 증가하였다.

2023년 상반기 현재 현물시장 거래가격은 4년 만에 7만 원을 넘어서면서 현물시장 거래가격은 다시 성장 추세에 접어들게 되었다. 정부 기준가격은 2019년 66,663원, 2020년 66,170원, 2021년 63,150원, 2022년 57,448원으로 4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동일 추세가 유지될 때 2023년 정부 기준가격은 5.3만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이후 3년 만에 현물거래가격이 정부 기준가격을 다시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3년 이후 동사는 REC 판매전략을 계약시장보다는 현물시장 판매로 결정하여 REC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8. REC 거래가격 변동 추이



*출처: 전력거래소, 나이스평가정보(주) 재가공

III. 기술 분석

군산 지방산업단지 내 순환유동층 연소 보일러를 통한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 운영

동사는 군산지방 산업단지에서 총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4기의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열병합발전소는 순환유동층 연소 보일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GE 3호기에서는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며, GE 4호기에서는 유연탄과 목재펠릿을 혼소 운영 중이다.

■ 군산 지방산업단지에서 총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열병합발전소 운영

열병합발전(CHP: Combined Heat and Power Generation)은 동일 연료를 사용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에너지시스템으로 정의하며, 코젠(Cogeneration)으로도 불린다. 또한,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공정 또는 난방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은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수요처로 열을 공급하나,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은 공정에 사용되는 열을 공급하므로 열교환기가 필요 없이 터빈 추기 또는 배기에서 직접 열을 공급한다.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은 보일러에서 고온 및 고압의 증기를 생산하여 터빈을 가동하여 발전한 후 그 배기 또는 추기를 이용하여 산업단지 업체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증기터빈 방식이 주로 많이 사용된다.

동사는 현재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333 소재의 군산 지방산업단지에 총 4기(GE 1호기~GE 4호기)의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연료의 연소로 발생한 고온, 고압의 증기를 증기터빈을 통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군산 지방산업단지 내의 19개 업체(OCI, 대상, 바스프 등) 및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의 1개 업체(한솔제지) 등 총 20개 업체 각각에서 필요로 하는 압력과 온도 조건의 증기를 증기터빈의 각 단에서 선택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림 9. 군산 지방산업단지 내 동사 주요 수요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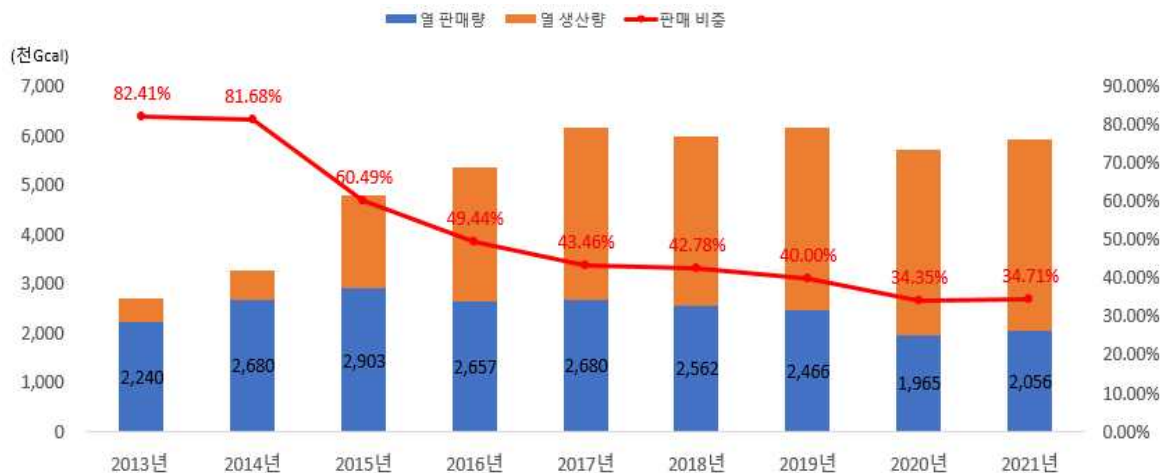


*출처: 기업 홈페이지(2023)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간한 ‘2022 집단에너지사업 편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동사의 열 자체 생산량 및 전기 자체 생산량은 각각 5,924천Gcal 및 3,523천MWh으로 국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열 자체 생산량(92,133천Gcal) 및 전기 자체 생산량(22,132천MWh)의 각각 6.43% 및 15.92%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2021년 말 기준 동사의 열 판매량 및 전기 판매량은 각각 2,056천Gcal 및 2,981천MWh로 2021년 말 기준 동사의 열 자체 생산량 및 전기 자체 생산량의 각각 34.71% 및 84.62%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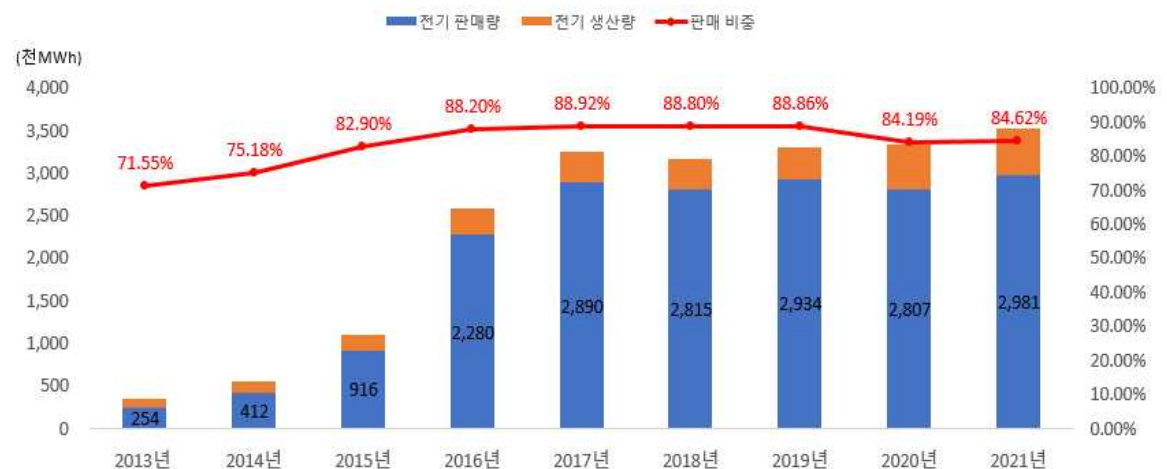
한편, 동사의 열 자체 생산량은 2013년 2,718천Gcal(구(舊) 군장에너지)에서 2021년 5,924천Gcal로 9년간 연평균 10.23%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전기 자체 생산량은 2013년 355천MWh(구(舊) 군장에너지)에서 2021년 3,523천MWh로 9년간 연평균 33.22%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열 자체 생산량과 전기 자체 생산량 모두 GE 4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10. 열 자체 생산량 대비 열 판매량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나이스평가정보(주) 재가공

그림 11. 전기 자체 생산량 대비 전기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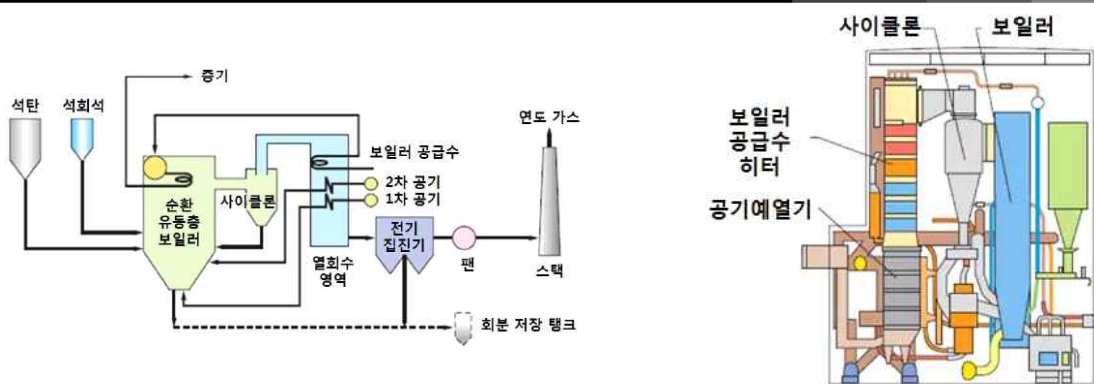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나이스평가정보(주) 재가공

■ 순환유동층 연소 보일러를 통한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 기술 보유

유동층연소는 유동재(석회석, 회분, 모래 등)와 공기의 혼합물로 형성된 유동층에서 분쇄한 석탄(입경: 25mm 이하)을 투입하고 유동층의 열(950~900℃)로 연소하여 열을 생성하는 발열반응 기를 의미한다.

순환유동층 연소 보일러는 유동층연소 방식의 하나인 순환유동층 연소(CFBC: Circulating Fluidized-Bed Combustion) 방식을 사용하는 보일러로 미연탄소를 사이클론에서 회수하여 연소실로 되돌려 보내 재연소함으로써 연소효율을 최대화하고, 낮은 연소온도를 가져 질소산화물 발생이 적고, 유동재로 석회석을 사용하여 황산화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높은 탈황 효율을 가지는 장점이 있어 친환경 발전설비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저급 탄, 폐기물 에너지원 및 바이오매스의 연소가 가능하여 높은 연료 적응성을 가지며, 연료별 혼소율 제어가 가능하다,

그림 12. 순환유동층 연소 보일러(좌: 흐름도, 우: 구조)



*출처: Japan Coal Energy Centre

동사는 현재 200t/h 용량의 CFBC 보일러 3기, 250t/h 용량의 CFBC 보일러 1기, 950t/h 용량의 CFBC 보일러 1기로 총 5기의 CFBC 보일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200t/h 용량의 CFBC 보일러 1기가 설치된 GE 3호기에서 목재펠릿 100%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950t/h 용량의 CFBC 보일러가 설치된 GE 4호기에서는 유연탄과 목재펠릿을 사용 연료로 하여 혼소 운영 중이다.

표 5. 동사의 열병합발전소 설비 현황

| 설비 | 사용 연료 | CFBC보일러 | S/T | 비고 |
|-----|---------------|----------|-----------|---|
| GE1 | 유연탄, 석유코크스 | 200t/hx2 | 54.5MWx1 | 2008년 4월 상업 운전 증기 판매, 생산 전력 전력거래소 의무구매 |
| GE2 | 유연탄, 석유코크스 | 250t/hx1 | 30.5MWx1 | 2010년 6월 상업 운전 증기 판매, 생산 전력 전력거래소 의무구매 |
| GE3 | 목재펠릿 | 200t/hx1 | 60.0MWx1 | 2015년 1월 상업 운전 증기 판매, 생산 전력 전력거래소 의무구매 |
| GE4 | 유연탄, 목재펠릿 | 950t/hx1 | 250.0MWx1 | 2017년 4월 상업 운전 증기 판매, 생산 전력 전력거래소 의무구매 |

*출처: 기업 홈페이지, 2023 분기보고서(2023), NICE평가(주) 재구성

■ SWOT 분석

그림 13. SWOT 분석



*출처: NICE평가정보(주)

▶▶ [STRENGTHS] 신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도약

동사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수소연료전지 사업,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사업, 해외 친환경 발전설비 전환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2021년 3월 인허가를 획득하였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사업은 2021년 12월 10년 장기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23년 3월 베트남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하였다. 동사의 신규사업은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WEAKNESSES] 자체 R&D역량 미흡

동사는 열병합발전소를 장기간 운영하면서 쌓아온 운영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연구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사업을 위해 2021년 10월 한국전력공사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독자적인 기술력은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및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OPPORTUNITIES] 정부의 녹색 정책 추진으로 친환경 발전설비 시장 확대 기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면서 친환경 발전설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사는 3년 이내에 신재생 연료인 우드펠릿만을 사용하는 전소 발전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THREATS] SMP 상한제에 의한 전력 시장규제

2022년 12월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2023년 1분기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1년간 운영되는 한시적인 규정인 점과 SMP 상한제로 인해 연료비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손해액을 별도 보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연간 매출의 영향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IV.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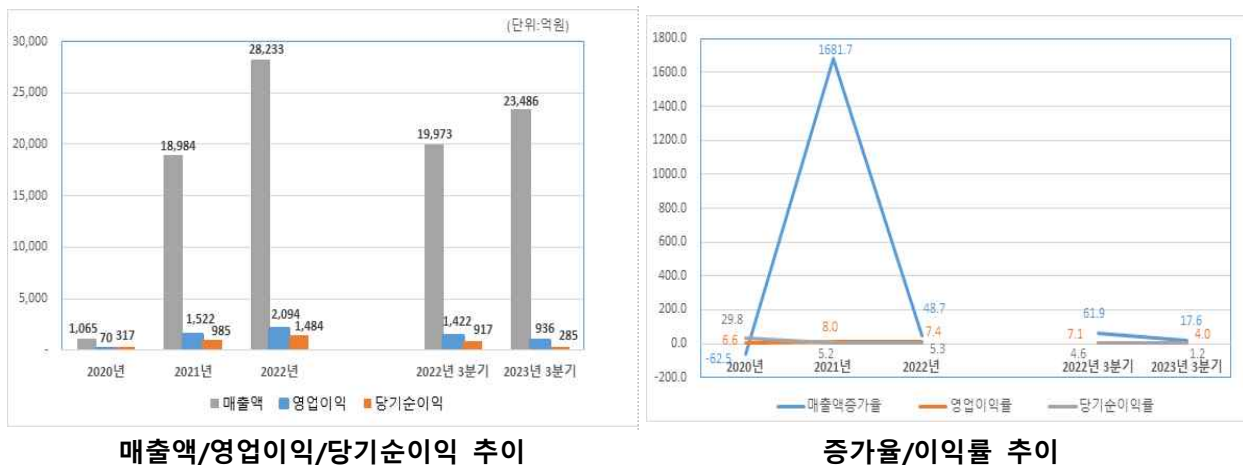
매출 급증 및 수익성 개선

친환경 발전소인 SGC그린파워(주)가 2021년 11월부터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2022년 발전/에너지 부문 매출 급증으로 2022년 연결 매출은 전년대비 48.7% 증가한 2조 8,233억 원을 시현하였다. 또한 유연탄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손상각비 환입 등의 영향으로 전년의 양호한 수준의 매출액순이익률을 유지하였다.

■ 친환경 발전소의 가동으로 매출 급증하였고 전년에 이어 양호한 수익성 유지

2022년 연결 매출은 전년대비 48.7%가 증가한 2조 8,233억 원을 시현하였다. 이 중 발전/에너지 부문 매출 1조 1,188억 원, 건설 및 부동산 부문 매출 1조 5,317억 원, 유리 부문 매출 2,877억 원을 보였다. 건설 및 부동산 부문 매출이 전년대비 16.3%가 증가하였고, 발전/에너지 부문 매출이 친환경 발전소인 SGC그린파워(주)의 가동으로 전년대비 128.3%가 급증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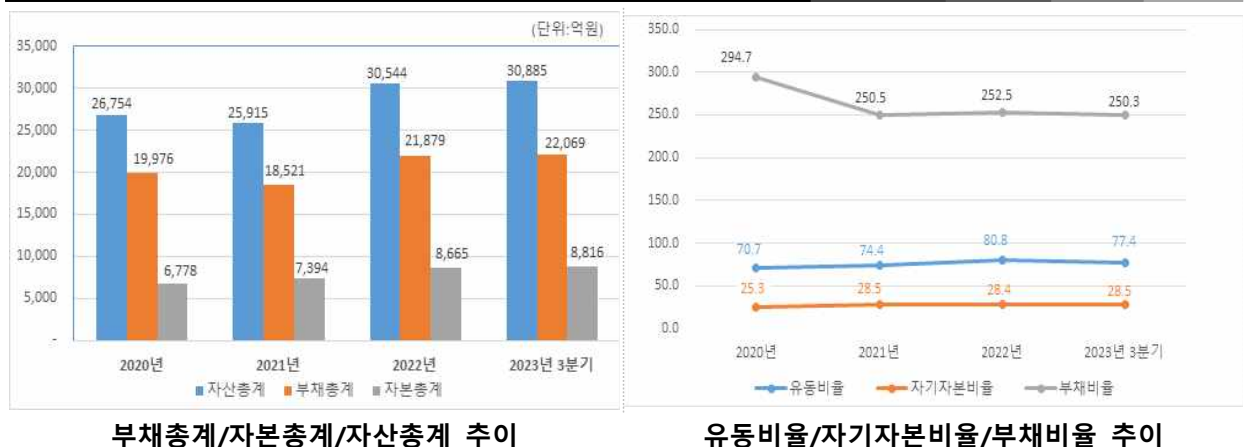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2022년 사업보고서, 2023년 분기보고서 연결 기준

그림 17. 연간 재무상태표 분석



부채총계/자본총계/자산총계 추이

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추이

*출처: 2022년 사업보고서, 2023년 분기보고서 연결 기준

■ 2022년 매출 급증 및 양호한 수익성 유지

2021년 11월부터 100% 친환경 발전소인 SGC그린파워(주)가 사업가동을 시작하며 2022년 결산 매출에 약 2,154억 원이 포함되게 됨에 따라 발전/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매출 급증 추세를 보였다. 한편, 유연탄, 목재펠릿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의 인상으로 매출원가율이 전기 86.5%에서 당기 89.6%로 상승하였으나, 대손상각비 환입 등을 통한 판관비 축소를 통해 당기 매출액영업이익률 7.4%, 매출액순이익률 5.3%를 보이며 전기 매출액영업이익률 8.0%, 매출액순이익률 5.2%와 유사한 수준의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였다.

2023년 3분기 발전/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제 정세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주요 원재료 가격의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매출원가율이 92.9%로 상승됨에 따라 매출액영업이익률 4.0%, 매출액순이익률 1.3%를 보이며 전년동기 매출액영업이익률 7.1%, 매출액순이익률 4.6% 대비 크게 하락된 양상이다.

■ 미흡한 재무구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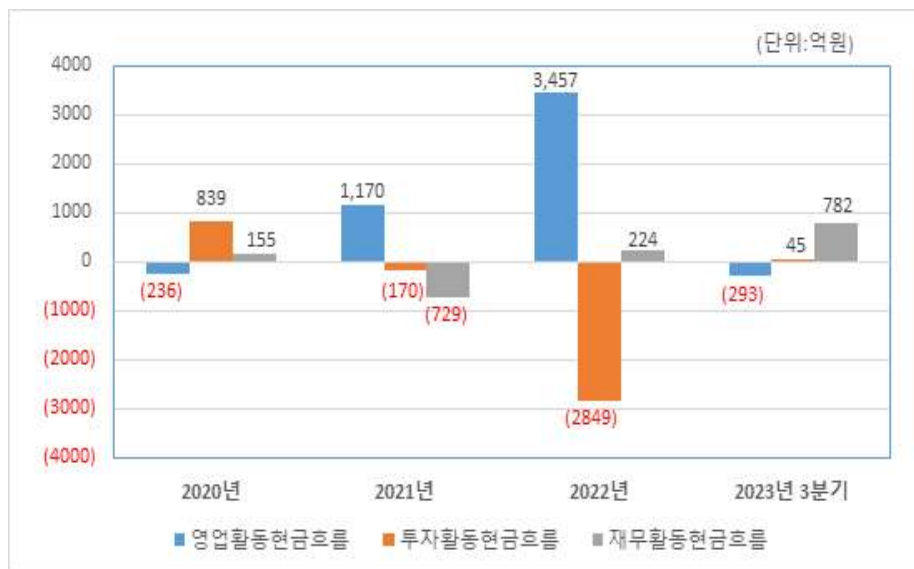
2022년 결산기준 영업을 통한 창출 수익의 내부 유보로 기말 현금유동성이 확충되었고, 원재료 가격 상승 추세에 대비한 원재료 선 확보로 재고자산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유동자산이 증가하였다. 또한, 단기차입금의 증가, 사채 만기 도래 등으로 유동부채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유동비율은 당기말 80.8%로 전기말 74.4%와 유사한 수준이며, 유동비율 200% 미만의 미흡한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발전소 시설투자로 인한 차입금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결산 연결기준 부채비율 252.5%, 자기자본비율 28.4%로 전년 말 부채비율 250.5%, 자기자본비율 28.5%와 유사한 수준으로 200% 이상의 부채비율이 지속되며 업계 대비 다소 미흡한 재무구조를 보였다.

한편, 2023년 3분기 연결기준 자기자본비율 28.5%, 부채비율 250.3%, 유동비율 77.4%로 2022년 결산 대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건설사업 진행 관련 시행사 대출 및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금액이 전년말 9,957억 원 대비 분기말 1조 1,104억 원으로 증가한 모습으로 지속적인 추세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 2023년 3분기 운전자금 부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자금흐름 저하

2022년 결산기준 창출 순이익을 바탕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전년대비 크게 확대되었고, 단기금융상품 등 투자자산에 투자하고 잉여 현금은 내부 유보하여 기말 현금유동성이 확충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현금흐름을 보였다. 한편, 2023년 3분기 기준 순이익이 감소한 가운데 매출채권의 증가 등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 상 자금 유출을 보였으며, 부족한 운전자금은 금융자산의 처분 등을 통한 투자활동 유입 현금을 비롯해 단기차입금 조달을 통한 재무활동 현금 유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바, 전반적인 자금흐름이 저하된 양상이다.

그림 18.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2022년 사업보고서, 2023년 분기보고서 연결 기준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의 성장하기 위해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

동사는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로의 연료 전환 추진 등 2025년까지 바이오매스만을 사용하는 전소 발전 전환계획을 추진 중이며, 새로운 친환경 사업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사업, 해외 친환경 발전소 전환사업을 진행 중으로 국내외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로의 연료 전환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기업 도약

동사는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아울러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활용함에 따라 국내 자원의 효율화와 국내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으로, 2021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와 2025년 수입 목재펠릿(바이오매스)의 REC 일몰에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60MW 용량의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연료를 국내산 미이용 산림자원으로 대체하여 운영 중이다. 동사는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비용을 고려하여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로의 연료 전환을 결정한 것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동사의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로의 연료 전환 결정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동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보와 강화를 위해 탄소 포집 등 신규사업을 추진 중이다. 탄소 포집 프로젝트는 자체 보유 중인 전기, 증기, 탄소를 활용하여 자원화하는 모델로, 동사는 군산 사업장 내에 연간 10만 톤(ton) 규모의 이산화탄소 및 액화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1년 10월에 한국전력공사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10년간 수요처에 장기공급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탄소 포집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후 관련 기술 연구개발에 뛰어드는 기업이 급증하면서 탄소 포집이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동사의 신규사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베트남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환사업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동사는 2023년 3월 SGC이테크건설과 함께 ‘베트남전력공사(EVN)’ 산하에 있는 전력엔지니어링컨설팅회사 ‘PECC1’ 과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환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무협약은 ‘베트남 8차 전력개발계획(PDP)’에 따른 베트남 정부의 ‘그린 에너지’ 공동 사업개발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PECC1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을 담당하고 SGC이테크건설은 설계·조달·시공(EPC)을 수행하며, 동사는 발전소 운영·관리(O&M)를 수행한다. 동사는 이미 유연탄 발전소를 자원 순환형 발전소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바 베트남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사는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기틀을 다져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자체 ESG 전략 수립 및 2년 연속 ESG 정보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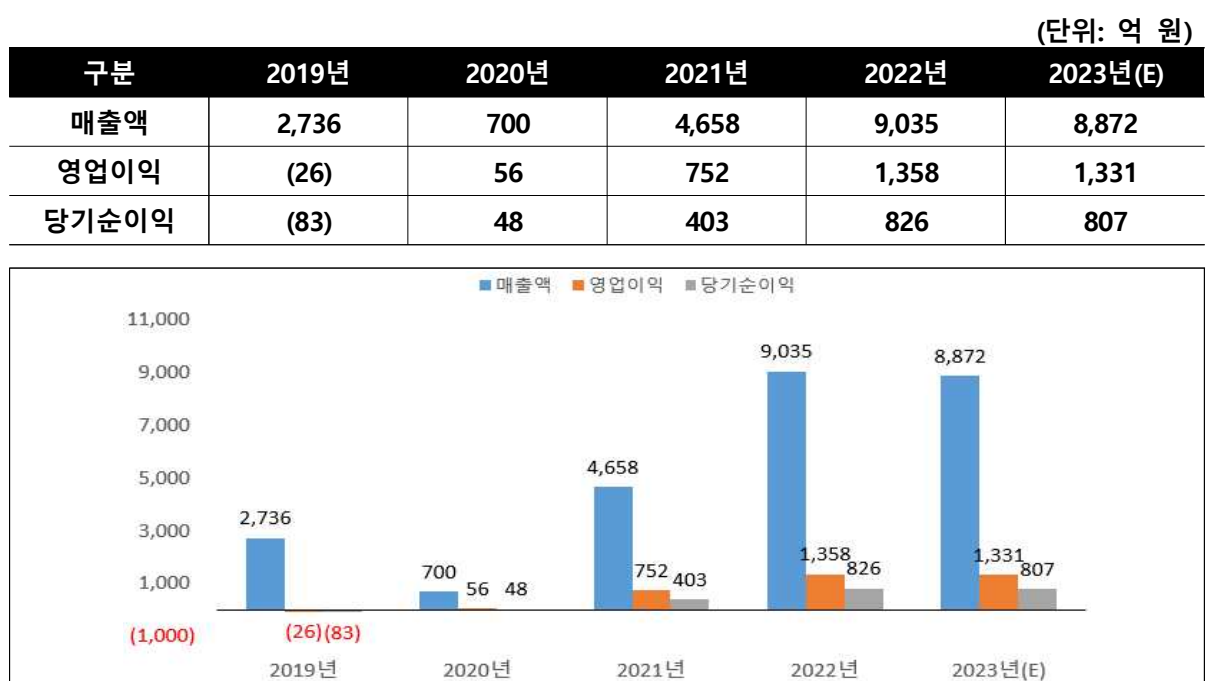
동사는 체계적인 환경경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 관련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 감축 전략 고도화의 일환으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계획’을 지지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약 177만 톤 수준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원 순환형 발전소 구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의 상용량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사업장 안전 고도화를 위해 체계적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만들기를 실천 중이다. 이 밖에도 협력사 ESG 리스크 최소화 및 동반 성장 강화, 가족 친화적 문화 정착, 대내외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ESG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추가로 2년 연속 ESG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공시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기업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ESG 경영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동사 실적 추이

동사 전기 부문은 SMP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84.5% 증가한 5,25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증기 부문과 REC 부문도 증기 가격과 REC 가격 상승으로 각각 전년 대비 47.9% 및 247.23% 증가한 1,719억 원 및 1,816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 외 기타 부문은 98.36% 증가한 242억 원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15.0%, 순이익률 9.1%를 기록하면서 군장에너지(주) 흡수합병 후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다.

동사 2023년 매출은 과거 2020~2022년 각 제품의 매출 추이 및 제품별 거래가격 변동 추이로부터 각각 추정하였으며, 2023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22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참조하여 추정하였고, 그 외 활동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17. 동사의 연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K-IFRS 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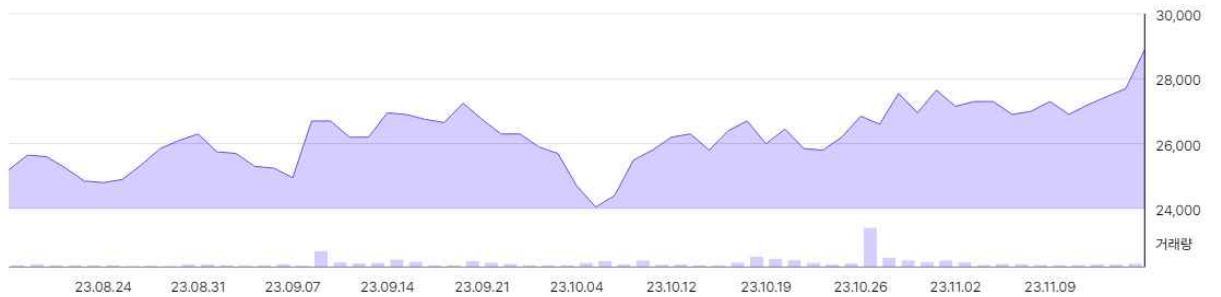


*출처: 각 연도 사업보고서(2023)

■ 증권사 투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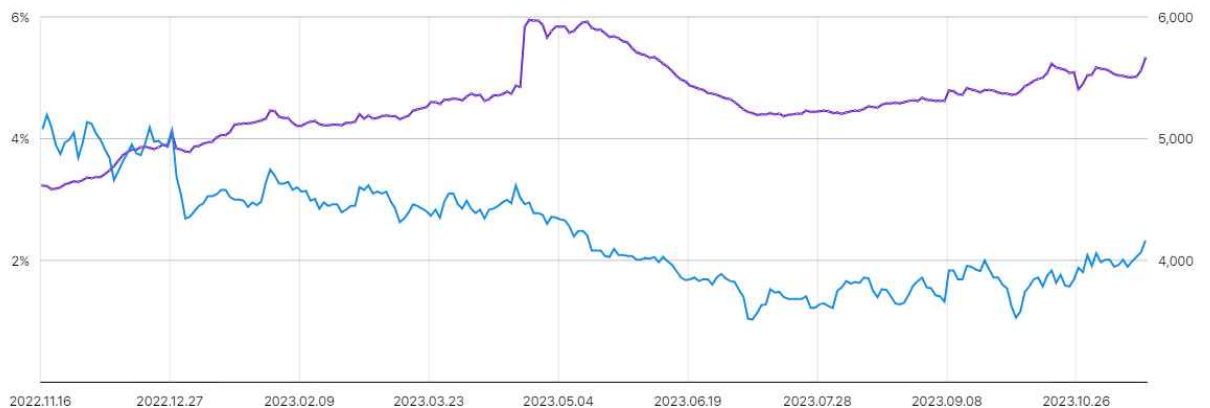
| 작성 기관 | 투자의견 | 목표주가 | 작성일 |
|------------|---|--------|------------|
| DS투자 증권 | BUY | 36,400 | 2023-11-06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분기에도 이어질 호실적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YoY +13.1%, 27.2% 성장 | | |
| 다올투자 증권 | BUY | 41,000 | 2023-11-03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인 실적과 배당 매력 기업 현황 업데이트 및 투자전략 점검 | | |
| 메리츠 증권 | BUY | 42,000 | 2023-10-27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별 500억 영업이익의 가능한 구조로 진입. 안정적 배당의 원천 자회사의 우발채무가 리스크이나, 감안해도 저평가 |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NICE BizLINE(2023.11.16)

■ 외국인 보유 비중, 시가총액



외국인 보유 비중 단위: % 시가총액 단위: 억 원

*출처: NICE BizLINE(2023.11.16)